

방치 문화재 '특별관리' 문화재청 관리인 선발 계획

폐사지나 산간오지에 방치된 불교문화재들을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 3월부터 추진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400여 명의 '문화재특별관리인'을 선발해 소외된 문화재 관리 및 유지를 위탁하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을 실시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백제의 미소' 보호각 벗어 서산군 내달 철거 착수

'백제의 미소'가 보호각을 벗어 나 햇빛 속에서 되살아난다. 충남 서산시의 태안군은 훼손 방지를 위해 세운 보호각이 습기를 유발하고 자연채광을 가려 마애삼존불의 미소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애삼존불의 보호각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의 보호각을 지붕과 기둥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던 서산시는 최근 새 보호각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설계에 착수한다. 새로운 설계에 따르면 마애삼존불 위에 자연채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재질의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벽이나 기둥은 세우지 않는다. 서산마애삼존불은 1965년 보호각이 설치된 지 42년 만에 햇빛을 받는다.

태극기 휘날리고 한·중·일 유적지도 답사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올 행사계획 다양...심포지엄·백일장도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최문성, 이하 기념사업회)가 올해도 태극기제양운동, 학술 심포지엄, 국내 및 중국항일 사적지 탐방, 백일장 개최 등 다채로운 사업을 펼친다. 기념사업회는 2월 23일 운암 김성숙 선생(태극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올해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월 28일 낮 12시 서울 명동에서 펼쳐질 '나라사랑 태극기 제양운동'이 주목할만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독립선언문과 제 2광복 새정신운동 취지문을 복사해 태극기와 함께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4월 12일 오전 10시 남양주 봉선사 대법당에서는 '운암 김성숙 선생 서거 제 38주기 추모제'가 봉행된다. 기념사업회는 연등축제가 펼쳐지는 5월 20일 축제현장에서 김성숙 선생의 공적을 알릴 계획도 세웠다. 이와관련 연등축제 당일에는 조계사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연꽃만들기' '불교관련 그림그리기' '염주만들기' 등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김성숙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 담

긴 수첩 1000부를 제작해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8월 1일에는 김성숙 선생을 조망하는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한다. '항일운동과 해방 후 정치활동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1920년대 초반 북경 의열단과 중경 임시정부 시절의 활동모습, 해방 후 정치활동 등이 집중 조명된다. 주제발표는 한국근현대사학회 교수진이 주축이 되며, 중국 중산대 한국연구소 교수 등 중국 사회자들도 일부 초청된다. 올 한해 기념사업중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해 호응도가 높았던 중국 항일운동 사적지 탐방이다. 올해도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기념사업회 인터넷(www.kimsunguk.or.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대학생 50명 정도를 선발한다. 10월 13·14일 양일간 국내항일 유적지 탐방도 진행한다. 일제시대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찰인 봉선사를 비롯해 충남 홍성의 김좌진 장군 기념관과 만해 스님 생가, 윤봉길 의사사적지인 충남 예산 충사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기념사업회측은 회보 제작과 중고생 장학금 지급, 경기도 성남 자광원을 월 1회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욕봉사 사업도 정기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중산대 김성숙 기념관 건립추진, 경기도 양평 용문사 옆에 20만평 규모의 테마파크 건립 추진, 중국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사업 등도 기념사업회가 올해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다. 민성진 사무국장은 "차별화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홍보물들을 통해 김성숙 선생의 업적과 그 속에 녹아 있는 불교정신을 알릴 것"이라며 "요즘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김성숙 선생과 같은 항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東大 일산병원 암센터 열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무원장 이석현)이 2월 22일 병원 지하 1층에서 암센터와 방사선종양학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암센터는 개원 이후 운영해 오던 암치료팀을 확대 개편한 것. 특히 암센터에는 초정밀 선형가속기를 도입, 암치료 부위에만 정확히 방사선을 조사해 종양을 제거할 수 있어 전문 암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질의학과 등 20여 양·한방 의료진 및 여러 행정조직의 협조진료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경영부총장제도 도입 東大 이사회서 결의

동국대가 경영부총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각 병원에 조계종 스님 법사가 배치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영배)는 2월 15일 제226회 이사회를 열고 이를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의 핵심인 정관변경의 건은 오영교 신

입 총장의 학제개편안에 따른 것. 이는 서울캠퍼스에 경영부총장·학사부총장, 경주캠퍼스에 경주부총장, 의료원에 의무부총장이 배치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서울캠퍼스 경영과 일반행정을 분담하게 되는 경영부총장은 별정직으로 외부 전문가에 개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총장직속의 경영관리실(혁신관리팀, CS경영팀), 자금조달계획과 수익사업 기획을 담당하는 사업개발부서를 신설해 정책조정과 고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각 병원에는 조계종 스님 법사를 둔다. 정관변경은 오는 3월 중 교육부의 인가를 거쳐 시행된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학교법인 동국대 2007학년도 예산으로 총 5137억여 원을 확정했다. 김주일 기자



새봄, 미술관에서 봄꽃같은 불심이 피네. 서울 경인미술관에서 열린 제17회 한국불교미술협회 기획전 '불교미술의 새로운 모색'에서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된 불화, 불상 등 총 43점의 불교미술이 선보였다. 개막식에 참석한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가운데)이 문명대 한국불교미술협회 이사장(오른쪽), 김장군 회장과 함께 작품 '아미타부처님'을 감상하고 있다. 글·사진=박재환 기자

"복지사들도 禪수행 합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3월부터 불교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활동가를 대상으로 '불교사회복지 실천가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불교적 소양과 수행심 고취를 위한 수행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것으로, 조계종이 보급하고 있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과 불교복지의 개념을 접목해 만들어졌다. 3월 6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진행된다. 화형은 5월 29일. 무가 스님(서울 공생선원장)과 고명석(포교원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 이용권(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황수경(동국대 강사)씨가 지도법사로 참여한다. 30명 모집에 참가비는 20만원. (02)723-5101 여수령 기자

국채보상운동 기념조형물 대구 대성사에 조성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대구 중구 서야동 대성사(주지 범수)가 새물결 조형물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의 대성사 자리가 1907년 당시 서상돈, 김광재 등이 모여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한 대구 최대의 인쇄소 광문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만에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재조명된 대성사 경내에는 국채보상운동 선연인 낭독 기념 조형물



이 2월 12일 세워졌다(사진). 표석에는 "1907년 1월 29일 광문회 회원들은 일본에 진 나라 빚 1300만원을 갚기 위해 담배를 끊기로 결의했다. 2년여 동안 불타오른 국채보상운동의 첫 불길이다"란 글귀가 쓰여있다. 배지선 객원기자

법계 장학금 지급 명성 스님 8명에

제5회 법계장학금 전달식이 2월 21일 거행됐다(사진). 법계장학금은 전 문운사 승가대학장 법계명성 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졌으며, 신심이 돈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불자들에게 주는 장학제이다. 이날 자원(동국대 불교학과 석사과정)·일중(인도 델리대 박사과정)·경산(동국대 불교학과 석사과정)·능학(동국대 선학과 졸)·정범(동국



대 경주 선화과)·지환(중앙승가대 선학과)·동호(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불교학과) 스님과 박남순(중국 베이징 외국어대 중문과)씨 등 8명에게 200만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손범천 대구지부장 남동우 기자

회계사 지역민과 대보름행사

서울 회계사(주)수경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보름 행사를 마련한다. 회계사는 3월 3일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송암교회, 한신대 운동장, 회계사 등에서 '회계 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부럼 나눠주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와 함께 시낭송, 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행사는 햇빛 점등과 달 집태우기로 마무리된다. 남동우 기자

공 고

지난 2월 13일 선암사 적묵당에서 실시된 선암사 제27세 주지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시행근거 : 지난 2006년 12월 26일 제92회 정기중앙총회에서 선암사운영위원회법이 폐지(한국불교신문 2007년 1월 4일자 공고)되고 태고총림 선암사법이 개정되어 조속히 재적승 총회를 개최하라는 통지(문서번호 태고총무 제2-13호)를 받았음.

이에 근거하여 선암사 수습대책위원들과 재적승은 동년 1월 31일, 회합을 갖고 2월 13일 오후 1시 선암사에서 전산총회를 열어 주지선출에 관한 제반사항에 합의하고 2월 2일 수습대책위원장이 "선암사 재적승 총회 개최공고"(한국불교신문 2월 2일자)를 하였음.

이에 공고한대로 동년 2월 13일 오후 1시 선암사 적묵당에서 재적승총회(전산대회)를 개최하여 재적승 총169명 중 107명(최종집계)이 참석, 105명이 투표(최종집계)하여 주지후보로 추천된 2명 가운데 백설은 60표, 임호명 44표, 무효 1표로 백설은 스님이 선암사 제27세 주지에 당선되었다.

이에 공고하고 선암사 수습대책위는 제반 업무를 종료하고 선암사에 관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선암사 제27세 주지 당선자인 백설은 스님에게 일임한다.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2월 13일

선암사사태 수습위원장, 재적승 전산총회 의장 원명

주지 당선을 축하합니다. 선암사 신도회 상가번영회 대각암(주지 상명) 신도일동 대승암 주지, 신도일동 용화사(주지 경산) 신도일동 남룡사(주지 도송) 신도일동 장원사 주지, 신도일동 기원정사 주지, 신도일동 정암사 신도일동 원평사 신도일동